목포~여수~부산 '남해안 경제벨트' 뜬다

선벨트·관광 클러스터·여수 엑스포유치 계기
정부, 수도권 버금가는 경제 성장거점 구축

선벨트(Sun Belt) 경제권 구축·관광 클러스터 개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등을 계기로 목포~여수~부산을 잇는 남해안 벨트가 인구·경제력에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새로운 해양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5일 순천에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추진전략'을 주제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 23개 시·군 관계자 100여명으로 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등 '남해안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채원일 관광자원과장은 "정부는 2009년까지 끝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뒤이어 2010년부터 5년간 이순신·공룡·습지·섬·크루즈 등 5가지 공동 테마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를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10월까지 수립,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관광지 및 한산대첩 역사문화관광지 조성(목포·해남·완도·여수·통영) ▲섬 휴양과 레저체험을 위주한 다도해 관광지역 조성(신안·진도·완도·여수·통영·거제) ▲공룡 에듀인터테인먼트 개발(해남·보성·여수·고성)▲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순천·창원·부산) ▲목포~여수~부산간 동북아 대표 크루즈 코스 조성(목포·통영·여수·부산) 등 5대 사업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 6일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남해안 지역을 ▲목포권 ▲순천·여수·광양·사천·남해·하동 등 6개 시·군을 합친 남중경제자유구역 ▲부산권 등 3개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과 선벨트권의 1대 1 구도로 국토개발 구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위'를 대체할 (가칭)'지역발전위'가 공식 결성되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도로와 철도 등 11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무려 7조7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여수 엑스포의 개최 효과는 전남은 물론 경남까지 미치게 된다"며 "여기에 관광 클러스터·선벨트 구축을 추가하게 돼 남해안은 수도권에 필적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김치 담그기 배웁니다" 15일 광주시 남구 압촌동 콩종합센터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 외국인 여성 20여명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16가지 한국 생활요리를 배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李대통령 5·18기념식 참석 어쩌나…

한총련 등 '美 쇠고기' 시위 가능성…경호 문제 고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경호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현재 구체적 일정을 조정중"이라며 "일단 가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및 사회 각 계층 인사들도 5·18 기념식 참석 여부를 청와대에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총련과 민노총 등 사회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광주 방문시 기습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보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5·18 묘역을 방문할 경우, 한총련 등이 기습시위를 벌이거나 계란을 투척하는 등 대통령의 5·18 묘역 진입저지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18일 오전 항의시위 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나 기습 시위 등으로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이 지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5·18 기념식 행사 당시 한총련 기습 시위로 정문으로 입장하지 못하고 옆문으로 입장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민간 대북지원 102억원 결정

정부, 식량증산 사업 등 의결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2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위원들의 참석하에 정식으로 열린 이날 교추협 회의를 통해 37개 민간 단체들이 추진중인 대북지원 사업 40여건에 대한 기금 지원 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올해 기금이 지원될 민간 대북지원 사업은 식량증산 및 농업개발사업 등 농업환경 분야 15개 사업, 어린이 보건의료사업 등 보건 의료분야 12개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13개 사업 등이다. 교추협은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7억여원(1천27만달러)과 42억여원(407만달러)을 각각 지원키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盧 정부' 훈령·지침 일괄 폐지

행안부, 새 국정 철학 맞춰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부처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령·예규·지침은 법률의 하위개념이지만 각종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당시부터 추진됐던 각종 제도와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져 유관기관 등에 내려보낸 각종 훈령·예규·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훈령·예규·지침은 각 부처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행안부가 정부의 조직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일부 부처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국.과별로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훈령·예규·지침 현황을 취합, 이들의 내용과 생산목적, 존속시한 등에 대한 일제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행안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훈령·예규·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한다는 전제하에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면 '외국인 노동자'서 계속

이날 '사전교육'도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설명이 주류를 이뤘다. 강사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3천480원의 급여 보장을 비롯 ▲산재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보장 ▲체불임금 보장 등을 주로 설명했다.

교육생들 또한 한국의 노동여건 개선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한 뒤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역시 '한국행'을 미끼로 목돈을 챙기는 브로커들로 몸살을 앓고있다.

베트남 노동자 위엔(39)씨는 "한국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6만 달러의 돈을 모았지만 현재는 일거리도 없고 급여도 너무 낮아 쉬고 있다"며 "최근 브로커에게 1만2천달러를 주고 비자를 받는 등 한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민영화땐 전기요금 급등"

김주영 한전 노조위원장 '정부 민영화 정책' 반대

김주영 한전 노조위원장은 "한전이 민영화 됐을 때 전기요금 급등, 전력 공급 불안, 국부유출 우려 등을 들어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전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위원장은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불가피 ▲농사용 전기공급 중단 ▲전력공급 불안사태 우려 ▲국부유출 및 국민부담 증가 등의 폐단을 꼬집었다. 또한 김위원장은 '한전을 분할 사유화하고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의 사유화를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 정책은 사실상 중단 또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균형발전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적극 반대한다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나주시민들도 함께 뜻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시민대책위 관계자는"정부가 국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민영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 만큼 다음주중 대규모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갖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왕우렁이 농법 계속 추진

전남도 "생태계 악영향 없다"

전남도와 친환경 농업인들이 최근 일고있는 왕우렁이의 생태계 악영향 우려 및 이에 따른 농법 중단 논란과 관련, 조사 결과 생태계 파괴에 별 영향이 없어 우렁이 농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15일 "2차례에 걸친 왕우렁이 월동실태 조사 결과 농경지와 주변 농수로에서 왕우렁이 개체가 발견되지 않아 월동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연합회 강대인 회장은 "일부 환경단체가 왕우렁이의 월동 사실 자체만으로 여론몰이식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말 끝나기가 무섭다

광양시 공고 제2008-440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 공람·공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 월 16 일

광 양 시 장

1. 교통시설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용도	규모 류별	규모 번호	규모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	600	8	국지도로	120	지방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나. 변경 및 신설 사유

변경전도면명	변경후도면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류)2-600	·신설 - 연장 : 120m, 폭원 8m - 면적 : 968㎡	·기존지방도801호선에서 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 신설

2.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경	면 적(㎡)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외 8필지	-	증 21,740	21,740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 : 21,740㎡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외 8필지	·첨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의 피해로 인하여 심미적 측면 및 환경오염이 심하여 주변환경피해 방지를 최소화할 도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3. 관계도면 및 세부조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2008년 5월 16일 ~ 2008년 5월 31일 (15일간)
5.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광양시청 도시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 (☎061-797-3426, 행 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접수는 FAX로 접수하신 후 전화로 금액 확인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집 사실증명·매입·부동산·매매·임대·건축·분양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800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001-107-226100 ♦농 협: 017-01-103304 ※예금주:㈜광주일보사

산행 안내 광고는 18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500990
광주C.C
김사채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공고함.

함평다이너스티CC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모집부분	인 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영지원팀	남,여 0명	회계, 출납	경력 1~3년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 기숙사 제공 · 1일3식 제공 · 4대보험
- 년차휴가 · 주1회 휴무제공
- 공휴일 별도 휴무제공 · 하계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등 기타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스 접수 : 061-320-7710
- E-mail 접수 : mannerwang@hanmail.net
- 문의 전화 : 061-320-7716(최관식)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CC

자본감소공고

당회사는 2008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일금 일십이억 오천만원정(₩1,250,000,000)을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일만원(₩10,000)의 주식 125,000주에 대하여 각 주식의 비율로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130,000주를 12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08년 5월 15일

주식회사 연세건설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283-6

대표이사 고 광 택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 2008년 5월 31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08년 6월 1일 ~ 2008년 6월 10일
  2008년 5월 16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괴리 524

고려시멘트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원 돈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김 정 태

부동산 매각 공고

산은캐피탈제삼호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매도인") 소유 부동산(이하, "매각대상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매도인의 자산관리자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자산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매각을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부동산

소재지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62-17 위 지상 건물 중 공유지분
면 적	토지 : 372.14㎡ / 건물 : 1,724.26㎡
층 수	지상6층, 7층
최저예정가	3억5천만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

소재지	대구 달서구 두류2동 87-36 위 지상 성안오피스텔 17층 1701호
면 적	토지 : 125.11㎡ / 건물 : 1,748.05㎡
층 수	지상17층
최저예정가	3억 5천만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

2. 입찰일시 : 2008년 5월 27일(화) 오후 2시
3. 입찰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번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7층 회의실
4.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5. 기타사항
- 입찰서류 등은 당사 홈페이지(www.kdbc.co.kr)를 참조바랍니다.
- 공지된 입찰유의서 등을 참조하시어 입찰보증금 및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입찰이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업무지원실 부동산 매각담당 (☎ 02-6330-0254)으로 문의바랍니다.

2008년 5월 16일

매도인의 자산관리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에이치인터렉티브(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하나월드(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8년 5월 15일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수반하여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8년 5월 15일

'갑'주식회사 에이치인터렉티브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59 2층
이사 정 흥 필

'을' 주식회사 하나월드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59 2층
이사 정 흥 필

부 고

임금택(광주일보 서울지사 광고국 부국장)어머님 이농장씨 사님께서 노환으로 2008년 5월 14일 오후 8시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2008년 5월 16일

발인일시 : 2008년 5월 16일(금) 오전 9시
발인장소 : 무안제일병원 장례식장 202호
장 지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선영하

아들 임금택
딸 홍 용
딸 점 희
자부 김 소 영
김 경 진

연락처 : 장례식장 061-454-9345
011-244-2674

(개별부고생략)